

299장 - 하나님 사랑은

- (1)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 (2)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 (3)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 (4)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 멘

524장 -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 (1)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 (2)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 (3)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 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11월 7일(목) 기도 담당 : 이창진 집사

2019년 11월 6일(수)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99장	다같이
기도	안상은 집사	
성경봉독	호세아 6장 1~3절	인도자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	엄재광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같이
찬송	524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호세아 6장 1~3절 >

-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참고구절 <예레미야 29: 11~13>

- 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11월 6일(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을 취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 넘치게 하시며,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우상의 품에 안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가슴 깊이 품으시며, 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사랑의 주님을 알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을 힘써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거룩한 구원의 등대’로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나날이 악해지고, 어둠이 짙어질지라도 오직 주님의 밝은 빛을 이 땅 위에 비추는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민족으로 회복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치·경제·문화·외교·국방의 어려움을 주님 잘 아시오니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주의 거룩한 오른손을 들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에게 허락하신 목회비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하옵시며, 협력하시는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어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도 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채 열흘도 남지 않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담대함’과 ‘평안함’과 ‘주님의 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